전주 옛 도심에 '여행자도서관'

전라감영 인근 '다가여행자도서관' 첫마중길 이어 개관 1,761권 장서 비치

복정권 기자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이어 전주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전주 구도심에도 여행자를 위한 특별한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0일 전라감영 인근에 위치한 옛 다가치안센터 건물(완산구 전라감영2길 28)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다가여행자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연면적 14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진 다가여행자도서관은 △여행을 설계하고 꿈꾸는 공간인 '다가독(讀)방' △여행자를 맞이하는 공간인 '다가오면' △여행을 소통하는 공간인 '머물다가' △새로운 여행을 바람하는 공간인 '노올다가' 등 이색 공간으로 구성됐다.

'여행'을 주제로 한 이 도서관은 △국내·외 여행지를 소개하는 여행안내서가 있는 '한발짝 여행'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여행도서로 여행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색다른 여행' △잠시 머무르며 쉽게 읽을 수 있는 여행매거진과 그림책으로 구성된 '잠깐만 여행' 등의 주제로 총 1,761권이 비치됐다.

다가여행자도서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 문을 열어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개관을 기념해 지역청년예술가인 이지현 작가의 특별전시회도 열린다. 시는 향후 다가여행자도서관에서 여행을 주제로 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주 곳곳에 봉사자도서관 등 다양한 특성화도서관도 문을 열고 있다. 올해는 △덕진공원 연화정 검이불루 도서관 △아중호수도서관 △헌책도서관 △한옥도서관 △천변생태환경도서관 △책의 산 숲속도서관 등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만나는 공동체 거점공간이자, 내 인생을 바꿀 한 권의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라며 "전주 곳곳에 특화도서관을 조성해 시민의 삶을 바꾸고, 여행자들의 목적지가 되는 다양한 도서관을 만들어 책의 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비전 선포식을 갖고, 기차를 타고 전주를 찾는 여행자들이 첫발을 내딛는 전주역 앞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을 비롯한 5개 특화도서관의 릴레이 개관식을 가졌다.

43년 만에 품에 안은 아들, "꿈만 같다"

전주완산서, 유전자 검사 진행 어머니 계신 전남 영광서 만남

1978년 10월. 김은자(가명)씨는 9살난 아들과 헤어지게 됐다. 인근 고모 집에 놀러갔던 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면서다. 온 동네를 돌며 아들의 행방을 찾았지만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칠순을 넘긴 노모는 마지막 기대를 걸며 유전자를 등록했다. "꼭 살아있으리라" 빌고 또 빌며 아들소식을 기다리던 그는 '2022년 1월 20일 오후 2시.'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았다. 김씨는 "43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속에 품고, 매일을 가슴 아파하며 살았다. 아들을 다시 만나게 돼 꿈만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전주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김씨의 아들은 전주지역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로 지내다 최근 독립했다. 그의 유전자는 일찍이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등록돼 있어 유전자 대조가 빨랐다고 한다. 지난 11일 두 모자의 유전자 일치 소식을 전달받은 완산서는 곧바로 이들의 만남을 계획했고, 이날 노모가 살고 있는 전남 영광으로 향했다.

박헌수 완산서장은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전북대 송정민, 의사국가시험 '전국 수석'

320점 만점에 303점으로 수석 합격

전북대학교 의대 의학과 송정민(사진) 학생이 제86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험에는 6,043명이 응시해 5,786명이 합격했다. 송정민 학생은 320점 만점에 303점(94.7점/100점 환산 기준)을 획득, 전체 응시자 중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

그는 "본과 2학년 때 교수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왔는데, 어떤 의사로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소중한 기회를 갖게 해주고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력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은 전북대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의학교육평가 6년 인증을 획득하면서 의학교육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143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최첨단 실습실과 대형 강의실 등을 갖춘 의생명융합관 건립에 나서는 등 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현철 기자

아내 명의 땅투기 LH직원 항소심서도 실형

오늘의 판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법정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3형사부는 2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2015년 3월 아내 명의로 이 인근 땅 1,322㎡를 지인 2명과 함께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억원 가량 주고 산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410㎡를 직장 동료 명의로 6억원 가량에 낙찰,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토지매수에)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이 몰수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LH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대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농지법위반혐의 김기영 도의원 벌금형

전주지법 3형사부는 20일 농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아내 A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기영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A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2억5,000만원 상당의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약 7,400㎡를 매입한 뒤 거짓으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농업경영의사가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정선 기자

전주시, 반값 농업기계 임대사업 연장

전주시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값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전주농업기술센터는 20일 농업기계 임대료 50% 인하 사업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보유중인 농기계는 63종·165대로, 농업기계임대사업소(063-281-6721~3)에 사전 접수 후 빌려 쓰면 된다. 임대는 농가 1인당 1대, 기종별로 최대 3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임대 농기계 방문 수령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운송요금은 전주지역 운송수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왕복 1건당 최대 8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양정선 기자

전북환경청, 환경기초시설 위반 행위 적발

전북환경청은 관내 14개 지자체의 공공하수·폐수·분뇨처리시설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개소에서 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5건과 수질측정기기의 상대정확도 부적합 등 운영·관리 미준수 4건 등이다.

해당 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사유로는 '출처 불명의 고농도 하·폐수 유입'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자체별 위반건수는 군산시가 8건, 전주시, 남원시 각각 5건 등으로 확인됐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반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모범을 보인 우수 지자체도 있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경쟁력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2021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고창군과 정읍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김제시, 익산시, 고창군, 진안군의 경우 지난해 단 1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

/공현철 기자

전주대, LINC 3.0사업 설명회

전주대학교는 20일 교육부의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인 LINC 3.0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6년 동안 매년 40억원(수요맞춤형성장형 기준)씩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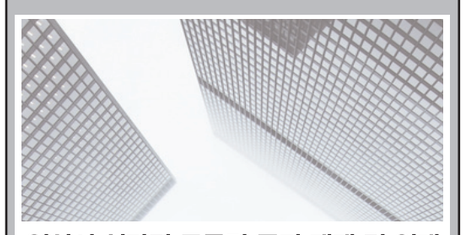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 학과별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의견수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대는 지난 5년여 동안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을 추진하면서 산학협력 우수대학으로써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드론, 융합전공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인재 양성 부분에서 전국적인 우수 혁신모델을 구축해왔다.

전주대 LINC+사업단장 주송 교수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친절한 부동산 중개
광고문의 : 063)230-5700
010-3654-5030

공/장/전/문 하나로부동산
대표 박종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공장 매매 및 임대
– 건물 :2,684㎡ (용도 : 공장 / 창고사용가능)
– 토지 :9,414㎡
※ 매매금액:12억
※ 임대가 보증금 월세 1년분 월세 평당 1만원(약간조정가)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공장 임대
– 건물 : 150평(용도 : 공장 / 창고사용가능)
– 보증금 1500만, 월세 평당 만원 8월 입주가능
010-3651-6304

LBA 재테크 공인중개사
금암동 중앙하이츠A맞은편 버스정류장 옆.(구.금암A)
매물접수
(전 북 지 역)
상가, 건물, 토지, 임야
원룸, 아파트, 주택 등
– 투 자 상 담 –
매수자 임차인] 대기중
063)232-7114 / 010-3652-7114

일회용품, 하루에 몇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심코 쓰다 버린 일회용품들이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